

“문화전당, 광주 심벌되도록 보완하겠다”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형태 논란을 비롯, 광주 문화수도 건설 사업이 초미의 관심이 되고있는 가운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세번째 사령탑을 맡은 조영택 위원장이 포부를 밝혔다.

조위원장은 본보 박진현 문화생활부장과의 특별대담에서 조성위의 위상과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광주시와 문광부와의 갈등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조영택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



대담=박진현 문화생활부장

10일 오전 광주일보 편집국 회의실

조위원장 약력

- ▲ 1951년 완도 출생
- ▲ 광주일고, 연세대 행정학과, 행정고시 13회
- ▲ 전남도청 농정과장, 내부부 행정과장
- ▲ 행정자치부 인사국장·자치행정국장, 행정자치부 차관
- ▲ 국무총리실 기획수석조정관, 국무조정실장

조성위 활동 보조할 실무지원팀 신설할 터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 조성위의 위상강화를 위해 업무를 지원할 전문지원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팀이 가동되면 조성위의 위상과 역량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문화중심도시 조성 추진기획단의 인력이 현행 60명에서 20명 정도 늘어남에 따라 조성위의 활동을 보조할 지원팀을 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팀은 어떤 성격의 기구입니까.

▲ 책임이 약한 조성위가 (송 전 위원장이 주장한) 별도 집행부서를 갖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지원팀은 문화수도 조성사업과 관련, 다양한 사안에 대한 연구 자료와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

하는 등 위원회의 활동을 보조·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임 송재구 위원장의 해촉에 따라 민간위원 7명이 집단사퇴했습니다.

▲ 지역정서를 잘 아는 분들이라 함께 일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입장을 존

중할 필요도 있습니다. 일단 위원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한 만큼 필요하다면 대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문화수도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문화수도 조성사업계획을 심의, 확정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하루 빨리 분개도에 올라야 합니다. 조성위 구성 날짜를 못박을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이나, 법적 기한 등으로 미뤄 불매 시급합니다.

-문화수도 조성사업에서 광주시의 '문화 산업론'과 문광부의 '연구·교류' 기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광주시의 의견이 시민들의 의견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받아들여 관찰하는 게 위원회의 임무이

기획단 인력 20여명 늘어 위상·역량 업그레이드

기도 합니다. 광주시가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경우 조성위가 정부와 광주시의 입장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문화전당의 랜드마크 논란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요.

▲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설계 보완이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설계자의 기본 건축개념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광주의 상징과 심벌이 될 수 있도록 보완방법을 찾겠습니다. 문광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되고, 설계공모한 것이기에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리=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현장과 시각

毒舌정치, 그들만 모르는 희극



임동욱 서울취재 팀장

대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벌어진 대통령선거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비롯한 여권의 핵심 인사들은 대통령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보다는 대선 정국을 주도하기 위한 진흙탕 싸움만 벌이고 있다. 여권 몰락의 근본적인 원인인 '분열과 오만'을 아직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열린우리당 해산을 주장한 정동영,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을 겨냥, "정말 당을 해체해야 할 정도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정치를 그만두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못을 박았다.

이같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 17대 총선 이전의 민주당 분당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탈당파들은 당시 민주당 사수파를 구태정치로 몰아세우고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열린우리당 창당했다.

그후 3년, 이번에는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들에게 구태 정치의 고질병이 도드라졌다고 비난하는 희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병완 청와대 정부특보도 열린우리당 해체파들을 겨냥,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살무사 정치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살무사 정치'는 정치적 태생을 부정하고 권력을 따라 신당을 창당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그동안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며 흔히 쓰던 용어였는데 이병완 특보가 이를 확인해준 셈이다.

여기에 맞대응하는 전직 당의장들의 발언도 가관이다. 김근태 전 의장은 "상대방에게 딱지를 붙이고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노무현식 분열정치"라고 받아쳤다. 정동영 전 의장은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배제의 정치, 편가르기의 정치를 넘어서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두 전직 의장도 민주당 분당 사태를 계기로 시정됐던 분열의 정치, 편가르기의 정치를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같은 여권 핵심 세력들의 분열상을 반영하듯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벌어진 단원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들이 벌어진 대통령선거에 대한 기대를 점차 접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열린우리당 최대 주주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대통령 및 정권 창출의 주역 자리가 아닌 여권 분열의 책임에 기반한 벌어진 대통령선거의 초석 역할이다.

그들이 통합의 초석 역할을 외면하고 자기 중심적인 대선 구도 창출에만 나설 경우,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분열정치의 누설이라는 비난과 함께 정권을 보수 세력에 넘겼다는 매혹한 역사적 평가라는 것을 새겨야 한다.

/tuim@kwangju.co.kr

김승연 회장 구속 오늘 결정

법원, 영장실질심사 사법처리 수준

상해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준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로부터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받은 지 불과 14시간 만에 10일 오전 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 어느 때보다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법원에 검찰로부터 영장이 청구된 바로 다음날을 영장실질심사 일을 지정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회장과 경호과장 진모씨에 대해 11일 오전 10시30분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도록 통보하고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10일 밝혔다.

2명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광만(45·사법연수원 1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

게 되며 심사 장소는 법원종합청사 319호 법정이다.

김 회장의 변호인으로는 김연정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등 5명이 선임됐다. 피의자나 변호인 측의 심사일정 연기 요청은 아직 없어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11일 오후 늦게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조직폭력배 동원 경위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폭행 사건이 발생한 3월8일 사건 현장 2곳에 있었던 범서방과 행동대장 오모(54)씨가 사건 직전 청년 15명 정도와 휴대전화로 통화했고 이 중 일부가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확인, 신병확보에 나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동해 부분 뺀 채 해도집 발간하자”

IHO 총회 ‘동해’ 표기 한국에 유리한 방안 제안

국제수로기구(IHO)가 10일(현지 시간) 모나코에서 속개된 총회에서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해 일본해 단독 표기가 삭제된 해도집을 발간하자는 한국측에 유리한 제안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 윈포드 윌리엄스 총회 의장은 동해표기 분쟁으로 발간이 되지 않고 있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4판 발간에 대해 동해·일본해 부분을 제외한 채 나머지 합된 부분을 발간하자고 공식 제안하면서 한국과 북한, 일본측에 복귀에 돌아갈 협의의 거처 공식 입장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의장의 제안대로 제4판이 발행될 경우 일본해 단독표기가 유지되고 있는 S23 3판 발행이 더 이상 사용되

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해 표기 문제에서 우리측에 유리한 상황이 된다고 우리측 수석대표인 송영관 외교교통상부 국제기구국장은 말했다.

또 일본의 반대로 4판이 발간되지 않더라도 한일 양국의 합의없이 4판이 발간될 수 없다는, 일본해 단독표기로는 더 이상 해도집 개정판을 발간할 수 없다는 IHO 총회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한편 이날 열린 IHO 총회에서는 동해 표기 문제를 첫 의제로 상정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남북한이 일본을 상대로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2대 1의 논전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브리태니커 2007년판

‘동해/일본해’ 병기

‘일본해’를 단독표기해 오던 세계적 백과사전인 브리태니커가 2007년판에 ‘동해/일본해’를 병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브리태니커의 이번 표기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세계지도 웹사이트, 언론사 등에 이어 한국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어서 11일까지 열리는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측은 “2007년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CD판을 구입했는데 ‘동해/일본해’가 병기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10일 밝혔다.

바른 영문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2007년도 CD판 한국 소개부본 지도(사진)에는 동해(East Sea)가 위에 크게 적히고, 일본해(Sea Of Japan)가 그 아래 괄호 안에 표기돼 있다.

/연합뉴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주)조이트래블

www.joy-travel.net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5가 57번지 2F

대표전화 (062) 234-3222

기억에 오래도록 간직될 가슴 설레이는 여행... 매년 1만명 이상의 고객들께서 조이트래블을 통해 여행을 다녀오십니다.

해외여행 보증보험 5억원 가입업체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중국1 - 전세계가 사랑

패키지1 (광주 출발)

[실속] 상해/소주/항주 MU 4일

329,000 ▶ 5월 31일 ~ 7월 21일

패키지2 (광주 출발)

[폭격] 상해/소주/항주 MU 4일

399,000 ▶ 5월 31일 ~ 7월 21일

패키지3 (광주 출발)

심양/백두산/도문 CZ 4일

679,000 ▶ 5월 18, 25일

패키지4 (광주 출발)

심양/백두산/도문/단둥 CZ 5일

729,000 ▶ 5월 21, 28일

유럽

광주 MBC 문화방송1

[실속] 베오의 성과 오프라우 LH 12일

3,090,000 ▶ 6월 29일

광주 MBC 문화방송2

[폭격] 오프라우와 베나스 운하 LH 10일

3,690,000 ▶ 6월 22일

광주 MBC 문화방송3

[폭격] 동유럽 주크스피츠, 직센스위스 LH 9일

2,790,000 ▶ 6월 21일

광주 MBC 문화방송4

[폭격] 트로이와 터키 일주 KE 9일

2,490,000 ▶ 6월 19일

추천상품 (광주 출발)

서유럽+동유럽 5개국 JL 16일

3,390,000 ▶ 6월 26일

독일·스위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체코

남태평양

패키지1

시디니 완전일주 QF 6일

990,000 ▶ 6월 5일

패키지2 (파리 출발)

홍주/뉴질랜드 남북선 (1급호텔) OZ 10일

1,290,000 ▶ 5월 21일

패키지3 (후쿠오카 출발)

홍주/뉴질랜드 북선 OZ 8일

1,390,000 ▶ 5월 22일

일본

추천상품1 (광주 출발)

오카만족! 국내 최저가 일본 류슈 운전 4일

279,000

추천상품2 (광주 출발)

통나무 콘도와 일본 전통 온천호텔과의 만남 4일

299,000

추천상품3 (광주 출발)

일본 전통 온천호텔을 체험하는 절호의 찬스! 4일

399,000

추천상품4 (광주 출발)

항공+초특급호텔 오사카/나라/교토 KE 4일

699,000

광주 MBC 문화방송

광주 MBC 문화방송

추천상품1 (광주 출발)

하이난 관광 4일 NO TIP !!

890,000

하이난 관광 5일 NO TIP !!

790,000

하이난 골프 4일

790,000

하이난 골프 5일

840,000

추천상품3 (광주 출발)

골프리조트(씨부) 4일 NO TIP & NO SHOPPING

1,050,000

골프리조트(씨부) 5일 NO TIP & NO SHOPPING

1,250,000

5월 17일 ~ 5월 31일

목요일(3박4일) · 일요일(4박5일)

실속	590,000-570,000	650,000-630,000
폭격	650,000-620,000	690,000-660,000
골프	790,000-770,000 (3박)	840,000-820,000 (5박)
관광+골프(36홀)	790,000-770,000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관광정책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를 철저히 준수합니다.